

“불황엔 체면보다 취업, 학력보다 기술”

대졸자들 직업전문학교 몰린다

대학 강사 출신도 지원...입시 방불

서울지역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딴 뒤, 수도권 4년제 대학에서 시간강사까지 지낸 정도(35)씨는 최근 직업전문학교에 원서를 냈다.

실직에 대한 걱정이 컸고, 대학 강사 경력에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자 이에 전문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예전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주류를 이뤘던 직업전문학교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넘쳐나고 있다.

이미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절반을 넘는 역전현상이 벌어진 지 오래고,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

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도 20~30%를 넘고 있다.

특히 취업이 유망한 자동차학과나 비파괴시험기 운영학과, 디자인 관련 학과 등 인기학과들은 대졸자들이 몰리면서 학생 선발 경쟁률이 3대 1을 기록하는 등 입시를 방불케 하고 있다.

한국폴리텍V대학(옛 광주기능대학)의 경우, 지난 2004년 대졸자 비율이 20%에 불과했으나 매년 10%가량 늘어 2008년에는 252명 모집 정원에 53.1%인 134명의 대졸자가 입학했다.

올해도 대졸자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8개 학과 모두 경쟁률이 2대 1을 웃돌았고, 특히 취업이 잘되는 자동차학과(60명 정원)는 200여 명이 지원서를 냈는데 상당수가 대졸자여서 풀리텍대학 전체 입학생의 대졸자 비율은 6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광주디자인직업전문학교도 6개 반의 수강생 50% 정도가 대졸자다. 지난달 모집을 완료한 웨딩드레스반(정원 30명)은 절반이 넘는 16명이 대졸자며, 4년제도 10명이 넘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어떤 분야가 취업이 잘 되느냐’ 몇 개월 정도 배우면 어떤 회사로 취직할 수 있는 ‘추세’라며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 직업전문학교 수업을 병행하는 대학 재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연세직업전문학교도 최근 조선업계나 의료계 취업률이 높은 비파괴 시험기시험기 운영학과를 졸업한 50명 가운데 24명이 대졸자였다.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올해는 대졸자가 30명선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폴리텍V대학 김현철 전기계측과 교수는 “경기불황과 실업 및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기능이나 자격증이 없는 대졸 고급 인력들이 직업전문학교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라며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명의 대여 변호사

억대 벌금·추징금

광주지법

법률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현직 변호사에 대해 억대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단독 이병주 판사는 26일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줘 과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41) 변호사에 대해 벌금 3천만원에 추징금 8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한 B(41) 사무장에 대해선 2억4천만원을 추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신분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A변호사가 법조경력에 짧은 젊은 변호사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은 B씨가 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순천에서 활동중인 A변호사는 2007년 4월 1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총 수임료(3억8천300만원) 가운데 1억9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U대회 광주 유치’ 리본 달기

26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유치 기원 북구민 발대식’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U대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리본을 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정만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송광문 북구청장을 비롯해 시민 1천여명이 참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개평’ 안준다며 몰카 사기도박

광주지검 7명 검거

도박판에서 ‘개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카카메라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사기도박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

장검사 조남관)는 26일 몰카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이거나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김모(51)씨 등 7명을 사기도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께 드라마 소품업자인 또 다른 김모(54)씨가 속칭

‘세븐오디’ 도박으로 돈을 따고도 개평을 주지않자 사기도박 시설업자인 김모(44)씨와 박모(35)씨 등을 불러 소품업자 김씨를 상대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1천230만원을 탄 혐의다.

이에 피해자 김씨는 사기도박 사실을 알고 청년 3명을 동원해 도박현장을 덮쳐 사기도박 주범 김씨로부터 1천430만원을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엽기 도둑’

광주 도심 상가 수시로 들락날락 금품 등 없으면 보란듯이 해코지

광주의 도심 한 주택가 상가에 ‘엽기도둑’이 설치고 있다. 보름 동안 수시로 들락거리며 상가를 털고 금품 등이 없을 땐 상가주인의 차량에 대변을 묻혀놓거나 가게 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식의 화풀이를 일삼는 엽기 행각도 서슴지 않고 있다.

26일 광주시 북구 연제동 코카콜라사거리에서 H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상가들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보름 동안 이 일대 상가 10여곳이 도둑을 맞은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를 본 가게는 제과점·미용실·과일상점 등 점포 내에 현금을 두는 곳이다. 이들 가게는 보름 동안 최소 두 차례 이상 도난 피해를 입었다.

범인은 가게 주인들이 새벽에 퇴근하는 것을 지켜본 뒤 상가에 침입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절도는 주로 가게 주인들이 퇴근하는 시간대인 새벽 1시30분~3시 사이에 집중 발생했으며, 잠금장치가 허술한 상가 뒷문을 도둑으로 뜯어내거나 열어 침입했다.

절도범은 특히 침입한 집에 현금이나 패물이 없을 경우 보란듯이 해코지를 한 뒤 달아났다. 범인은 지난 25일 새벽께 미용실에 침입했다가 잔돈 2천원 밖에 없자 가게 뒷문의 잠금장치를 철사로 찡찡 감아냈다.

또 같은 날 퇴근하려는 제과점 주인 차량 운전석 손잡이에 대변을 묻혀놓고 지켜보다 이를 만진 주인이 손을 씻으려 간 사이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훔쳐갔다. 옆 가게에서 훔친 길이 30cm의 손도끼를 다른 가게에 갖다 놓거나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놓는 한편 출입문에 사다리 등으로 방호벽을 쳐놓기도 했다.

특히 범인은 금품을 털어도 가게에 신발 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 극도의 치밀함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에게 공포감마저 심어주고 있다. 피해를 당한 이모(여·40)씨는 “범인이 가게 구조나 폐점 시간 등 일대 상가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무섭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연구소 전시 노트북 도난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 오룡동 A기업 광주연구소 1층에 전시된 노트북 1대가 사라졌다.

경찰은 A기업이 컴퓨터와 인터넷 부문의 국내 선도 기업이라는 점에서 회사 기밀이나 기술 유출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담양군, 의원 자녀 행정인턴 편법 채용

응시자격 재공고까지

담양군이 청년 행정인턴 채용과정에서 A 군의원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재공고까지 하는 편법을 자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군은 지난 1월19일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인턴 채용공고에서 응시자격 및 학력부문에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이상’이라는 조건을 고시했다.

그러나 같은 달 28일 채용 재공고를 내면서 응시자격을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으로 바꿔 A

군의원 자녀를 포함한 4명을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1차 공고에서 12명이던 채용인원 역시 10명으로 줄었다가 재공고를 통해 4명을 추가 합격시켜 탈락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불합격자는 “뇌물과 인사비리로 군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이같은 비리가 발생했다”면서 “철저하게 조사해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담양군 관계자는 “정확한 계획에 따라 채용공고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kwangju.co.kr

대법, 혜진·예술양 살해범 사형 확정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유예슬 양을 살해하고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40) 피고인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집행 사형 확정자는 59명이 됐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영리약취·유인과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0대 男 사흘 연속 지구대서 행패

○~전과 16범의 50대 남성이 사흘씩이나 경찰지구대에 공연한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 철창행.

○광주남부경찰청은 26일 지구대에 서 근무중인 박모(50) 경위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오모(52)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5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남구 방림지구대에 들어가 ‘돈도없이 택시를 탔으니, 처벌하라’며 지구대 벽을 발로 차는 등 2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운 혐의.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16범인 오씨는 경찰에서 “지난 15일에 담배꽂초를 버렸다가 경범죄 딱지를 끊겨 화가 났다”고 진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